

◇기획시리즈 —올바른 평화론의 정립을 위하여 <完>

평화 더이상 이용될 수 없다!

기획르뽀-미8군 이전 예상지 대전을 찾아서

지난 957호 기획시리즈에서 밝혔듯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통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46년간 지속된 분단·대립구조는 통일에 관한 논의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극복만이 한반도내 평화실현의 단초가 될 것이다.

용산을 떠나는 미8군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에 위치한 85만 5천평의 미8군기지. 1943년 9월13일 처음으로 미군이 이곳에 주둔한 이래 이곳은 한·미의 군사작전권을 쥐고있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비롯해 주한 미군사령부, 미8군사령부 등을 포괄하는 주한미군의 핵심본부로 존속해왔다.

그러나 이곳은 서울 중심지에 위치한 관계로 도심교통의 체증과 도시개발의 장애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고 이지역에서만 7만에 이르는 접대부(일명 양공주)와 혼혈아를 양산시키는 등의 사회문제로 기지이전의 필요성이 한·미양국간에 계속 제기되었다.

88년 8월 한·미양국은 용산기지를 한강이남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 하였다. 이 이전대상지에 대하여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해 왔었다.

그러던 중 홍콩에서 간행되는 'Far Eastern Economic Review' 지 89년 1월16일자에 한국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용산에 있는 미8군 사령부의 병력이 89년 말 이전에 처음으로 이동, 재배치될 것 같다."고 보도되고 이것이 국내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리고 12월29일자 연합통신에 "한·미양국은 용산 미8군과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전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기지이전에 따른 소요경비 30억불을 한국측이 부담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되자 대전지역은 갑자기 대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대전 이전설의 배경과 근거

용산기지의 이전발표 후 대전대상지로 오산, 평택, 대전이 후보지로 거론됐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곳은 대전으로 보고있다. 대전에는 핵무장 부대가 배치된 캠프 에임즈(Camp Ames)와 식장산의 레이 다지기가 있고 현재 건설중인 서

미군철수는 언젠가 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는 맥락에서 볼 때, 미군기지의 이전이 오히려 미군주둔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본고는 미군기지 이전의 배경과 이전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한반도 평화 실현의 전망을 세우고자 한다. <편집자註>

산 해미공군기지와 핵저장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군산의 미공군기지,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아산만과도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육·해·공군 통합사령부가 대전근교인 신도안으로



◇대전역에서 미8군 대전이전 반대를 위한 집회 장면

이전되면서 한·미군간에 유기적인 연합작전 체제를 구축하고, 군작전 지휘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한·미연합사령부는 신도안 이전지역으로 올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담하나 사이로 육·해·공군통합사령부, 국방부와 미사령부가 인접해 있었다.) 만약 이상과 같이 대전으로의 이전이 확정적이라고 한다면 현재 대전부근의 어느지역이 가장 적합할까?

또한 인근 공장에서 AIDS치료소를 세울 예정이었으나 학생과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중인 상태이고, 계룡산 기술아래 신도안 부근에는 위락도시인 계

룡시가 건설되고 있다.

대전기독교 청년협의회(EYC)의 총무인 유병규씨는 계룡시 건설의 의미를 이렇게 본다.

"정부당국이 계룡산 국립공원 부근의 위락도시로 계룡시를 건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8군이 신도안으로 이전할때 필요한 이태원과 같은 위락도시가 될 겁니다."

그러나 88년도 국정감사 자료 등 여러가지 발표된 자료를 종합하면 신도안보다 더욱 의구심이 가는 곳이 있다.

충남대학교 서문에서 시내버스 133번을 타고 신당진 방향으로 10분쯤 가다보면 단둥이라는 지역이 있다. 이곳에서 내려 오른쪽을 바라보면 농협들 몇개의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되고 건축공사와 도로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대덕지구 개발현장이다. 그리고 왼쪽은 경부고속도로 건너편으로 병풍처럼 산이 둘러싸인 곳에 또 다른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바로 이곳이 88년도 충남도청 국정감사자료에서 드러난 미8군 이전지, 6.20사 업지구 숲골이다.

지난 83년 6월20일부터 국방과 학연구소의 특수사업추진을 이유로 매입을 시작한 후 84년 6월30일까지 완전히 철거를 끝낸 이 지역은 88년에 와서야 첫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그해 충남도청 국정감사자료와 맞아 떨어질 수 있다.

이에대해 숲골이주민회 회장 김갑환씨는 "강제철거의 이유인 국방과 학연구소가 아니라 군부대나 미8군을 숲골에 이전시킬 경우 행정소송을 비롯한 결사 반대 투쟁을 벌이겠습니다"라며 굳건한 의지를 밝혔다.

논의 경우 평당 평균 1만1천원, 밭은 1만2천원, 대지는 4만원 상당의 헐값에 강제적으로 매수당했다. 미8군 이전지 2백67만평이 보충면적은 7백10만평이 된다.

숲골은 레이다로서도 전혀 포착되지 않는 전국에서 몇 안되는 천연요새인데 88년 6월 삼익건설과 삼부토건에 의해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현재 출입은 통제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이곳은 항공사진도 못찍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충남대 총학생회 간부인 한 학생의 말 그대로 숲골은 부채꼴 모양의 산형지가 기지로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출입 또한 입구에서 3-5

명의 군인들이 항상 보초를 서고 있어 통행증이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했다.

길 입구에 있는 '문구상회'의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 숲골안의 상황을 물었다.

"숲골에 있는 모든 집이 강제

명인 군인들이 항상 보초를 서고 있어 통행증이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했다. 길 입구에 있는 '문구상회'의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 숲골안의 상황을 물었다. "숲골에 있는 모든 집이 강제



숲골지구, 엄중한 통제속에 대규모공사 진행중 미군기지 철수는 한반도 평화의 선결 요건

철거당하고 남은 것은 20여명의 스님이 계신 수운과 본산인 절 한채와 그옆의 초가집 한채뿐이

이유. 부근의 신도들이 새벽이면 이 절에 기근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통행증을 내 주지요." 그리고 이에 덧붙여 "현재 공사가 어마어마하대요. 거기서 일하는 아저씨 말 들어본게 계속 산을 깎고, 도로를 만들고, 풀(도랑)을 파고 있대요. 조금 높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미군기지가 들어올 것 같다고 하던대요"라며 말을 맺었다.

아직까지 이 지역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공식적으로 발표

가 되지는 않았지만 재반향으로 이루어 보아 미8군 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다.

미대위의 활동과 정책 이전설 이후의 대전

용산미군기지의 대전이전이 발표된 후 89년 7월27일 대전 48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미8군 대전이전 저지를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미대위)를 창립하였다.

그런 후 미대위는 대전직할시장, 충남도지사, 국방부, 미대사관 등 관계당국에 공개질의서를 띄우는 한편 주한미군과 관련된 해외단체와의 국제적 연대, 성명서발표, 강연회·심포지움·공청회 개최, 문화행사, 평화대행진, 서

- 글쓰는 순서
1. 평화의 개념과 평화운동의 의의
 2. '사회주의 평화론'의 발전과정
 3. 서유럽의 평화운동 성과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평화운동의 시각에서 바라본 동구권 변혁
 5. 민족보존의 해결고리로서 정립되는 평화운동(아·태지역 중심으로)
 6. 한반도내 평화운동의 현황과 전망
 7. 기획르뽀

입니다. 또한 장하진·전광희(충남대학교 수·사회학)씨의 통일·평화및 미군기지 대전 이전에 대한 대전시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이 85.2%나 되어 미대위의 홍보·선전작업

그러나 평택 이전설이 나왔다고는 하나 몇가지 의문점이 있다. 대대협의 윤창호(충남대·사회) 4)정책위원은 그 의문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첫째 용산기지의 평택이전 대상으로, 타부대에 대한 언급없이 한·미연합사령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용산기지는 이미 이전을 시작했고, 숲골도 강제철거되어 7백여만평의 땅에서 광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평택 이전 아직도 땅을 매입하는 등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88년도 충남도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숲골의 철거이유가 명백하게 미8군 이전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제생각으로는 대전주민이 지역차원의 운동에서 반미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불식시키고 일시적으로 숲골공사의 의도를 숨기위한 제쳐서로 평가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보아 제생각으로는 대전주민이 지역차원의 운동에서 반미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불식시키고 일시적으로 숲골공사의 의도를 숨기위한 제쳐서로 평가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보아 제생각으로는 대전주민이 지역차원의 운동에서 반미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불식시키고 일시적으로 숲골공사의 의도를 숨기위한 제쳐서로 평가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보아 제생각으로는 대전주민이 지역차원의 운동에서 반미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불식시키고 일시적으로 숲골공사의 의도를 숨기위한 제쳐서로 평가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보아 제생각으로는 대전주민이 지역차원의 운동에서 반미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불식시키고 일시적으로 숲골공사의 의도를 숨기위한 제쳐서로 평가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보아 제생각으로는 대전주민이 지역차원의 운동에서 반미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불식시키고 일시적으로 숲골공사의 의도를 숨기위한 제쳐서로 평가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보아 제생각으로는 대전주민이 지역차원의 운동에서 반미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불식시키고 일시적으로 숲골공사의 의도를 숨기위한 제쳐서로 평가되어집니다"

그러나 평택 이전설이 나왔다고는 하나 몇가지 의문점이 있다.

대대협의 윤창호(충남대·사회) 4)정책위원은 그 의문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첫째 용산기지의 평택이전 대상으로, 타부대에 대한 언급없이 한·미연합사령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용산기지는 이미 이전을 시작했고, 숲골도 강제철거되어 7백여만평의 땅에서 광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평택 이전 아직도 땅을 매입하는 등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88년도 충남도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숲골의 철거이유가 명백하게 미8군 이전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제생각으로는 대전주민이 지역차원의 운동에서 반미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불식시키고 일시적으로 숲골공사의 의도를 숨기위한 제쳐서로 평가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보아 제생각으로는 대전주민이 지역차원의 운동에서 반미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불식시키고 일시적으로 숲골공사의 의도를 숨기위한 제쳐서로 평가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보아 제생각으로는 대전주민이 지역차원의 운동에서 반미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불식시키고 일시적으로 숲골공사의 의도를 숨기위한 제쳐서로 평가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보아 제생각으로는 대전주민이 지역차원의 운동에서 반미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불식시키고 일시적으로 숲골공사의 의도를 숨기위한 제쳐서로 평가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보아 제생각으로는 대전주민이 지역차원의 운동에서 반미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불식시키고 일시적으로 숲골공사의 의도를 숨기위한 제쳐서로 평가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보아 제생각으로는 대전주민이 지역차원의 운동에서 반미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불식시키고 일시적으로 숲골공사의 의도를 숨기위한 제쳐서로 평가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보아 제생각으로는 대전주민이 지역차원의 운동에서 반미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불식시키고 일시적으로 숲골공사의 의도를 숨기위한 제쳐서로 평가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보아 제생각으로는 대전주민이 지역차원의 운동에서 반미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불식시키고 일시적으로 숲골공사의 의도를 숨기위한 제쳐서로 평가되어집니다"

타이어는 역시 한국타이어



세계속의 한국타이어 인재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확고한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엘리트. 생명의 가치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엘리트. 50년 역사로 우리나라 타이어산업에 이끌어가는 한국타이어가 新世代 新主役으로 찾고 있습니다.

'90년도 大卒新入社員募集

1. 모집내용			
모집 부문	인 원	전 공	
기획·관리·국내영업직	00명	인문사회계열	
연구·기술·생산·생산관리직	00명	이공계열	

2. 응시자격

- 90년 7월 전역예정장교
- 장규 4년제대학교졸업후 전공자로서 90년 8월 학위취득 예정자 또는 기취득자(이공계 석사학위취득예정자 및 기취득자는 우대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현재 군복무중인자는 90년 7월말 이전 전역예정일자에 한하여 지원가능)

3.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나. 필기시험(영어, 일반논문) :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함
다. 면접전형 :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함

4. 제출서류			
입사지원서(당사소정양식)	1통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대학원은 대학원 성적포함)	1통		
※ 전학년 평점평균 기재			

5. 원서교부 및 접수

- 기간: 90. 6. 4(월) ~ 6. 12(화) 09:00:00 ~ 17:00
- 교부 및 접수처

지 역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	152-070 서울서 구로구 신도림동365 한국타이어 인사부	(직통) (02) 670-5231~3
대전	306-210 대전직할시 대덕구 옥산동 100 한국타이어 인사부	(직통) (042) 930-1572~3

※ 우편접수는 사용 인사부에서만 접수하며 마감일까지 도착한에 한함.

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함

7. 필기시험			
인사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함			

8. 기 타

- 국가보훈대상자는 증명서류첨부시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바람

한국타이어 TIRE

본사 및 영동포장공: 670-523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65
대전공장: (대전) 930-1572~3 대전직할시 대덕구 옥산동 100
인천공장: (인천) 571-8061~3 인천직할시 서구 석남동 223-41